



표삼수 한국오라클 지사장

“국내 IT발전에 기여하는 한국의 오라클 되겠다”

오라클은 최근 4개월 간의 지사장 공백을 마무리하고 한국지사를 이끌 새로운 수장으로 표삼수 전 우리금융정보시스템 사장을 선임했다.

이번에 지사장에 전격 발탁된 표삼수 지사장은 그간 한국원자력연구소, 삼성전자를 거쳐 현대정보기술 사장, 우리금융정보시스템 사장, 하나은행 자문위원 등을 역임했다. 특히 그는 IT 벤더 뿐만 아니라 IT 수요업체에서도 대표이사로 근무하는 등 IT의 공급과 수요 부문을 두루 섭렵한 몇 안되는 인물 중 한 명으로 평가받고 있다.

표삼수 지사장은 지난달 6일 열린 취임 기자간담회에서 “벤더에서 시작해 파트너, 고객, 그리고 다시 벤더의 입장으로 돌아오게 되니 친정에 돌아온 느낌”이라며 “예전에는 로컬 벤더를 글로벌 벤더로 키우는 것이 목표였지만, 이제 글로벌 벤더의 입장에서 로컬 기업의 글로벌화를 돕는데 일조하겠다”고 취임 소감을 밝혔다.

표 지사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향후 한국오라클의 ‘역할론’을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한국오라클이 한국 IT업계의 리더로서 공헌할 수 있도록 하는데 주력할 것”이라며 “단순한 테크놀로지 공급자가 아닌 비즈니스 파트너로서 회사의 위상을 재정립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내 기업들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고 활동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파트너의 역할에 주력하겠다는 얘기다.

또한 그는 “한국오라클이 한국 사회에 공헌을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고민하겠다”며 “국내 IT 커뮤니티의 일원으로서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힘찬 출항을 알렸지만 향후 ‘표삼수호’가 해결해야 할 문제도 적지 않아 보인다. 우선 한국오라클은 지난해 지사장 권한을 축소시키고 상대적으로 아태지역본부의 영향력을 강화한 이른바 ‘메트릭스’ 구조로 조직 개편을 단행한 바 있다. 이러한 조직개편은 김일호 전 지사장의 갑작스런 퇴임과 맞물려 내부 갈등설로 불거지는 등 후유증도 감지되고 있는 상황이다.

표 지사장은 “메트릭스 조직 형태는 글로벌 벤더 사이에서는 이미 검증돼 있으며 다양한 산업군을 공략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며 “오라클이 이

러한 조직 구조로 바꾼 것은 테크놀로지 중심 기업에서 애플리케이션 기업으로 진화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이라는 입장을 표명했지만, 향후 조직 관리 과정에서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는 미지수다.

또한 오라클 본사에서 피플소프트·시벨시스템즈 등 대형 애플리케이션 업체들을 인수한 이후라 애플리케이션 사업부문에서도 구체적인 실적을 보여줘야 하는

것도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기존 DB 사업부문에 비해서 경쟁력이 떨어지는 애플리케이션 사업 부문을 얼마나 강화할 수 있을지 여부도 향후 표삼수호가 풀어나갈 숙제이다.

글 양기석 기자 사진 이혜성 기자